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

▶ 10회 예고
탁실라에 도착한 빈두사라왕은 반란자들을 잔인한 공격으로 진압한다. 그러나 다르마는 빈두사라의 피 묻은 갑옷과 잔인함에 놀란다. 특히 자신의 뱃속에 든 왕자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꾸루국에서 환대를 받다

빈두사라왕 군사는 탁실라로 향했다. 정예군사로 구성한 선봉대가 맨 앞장을 섰고, 그 다음은 코끼리를 탄 친위대가 빈두사라왕을 앞뒤로 호위했고, 이어서 물품을 수송하는 군수대가 따랐고, 맨 마지막은 활처럼 휘어진 칼을 옆구리에 찬 보병들이 달리듯 걸었다.

빈두사라왕이 탄 코끼리가 단연 돋보였다. 머리에 오색 구슬로 장식한 코끼리는 몸에 황금색 비단을 두른 채 겅중겅중 움직였다. 코끼리등 위에는 전단향나무로 만든 의자가 놓였고, 왕을 상징하는 대형 일산은 군사 두 명이 붙들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일산 속에서 친위대장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행군을 멈추거라!"

"잠시 휴식을 하라!"

다르마 왕비가 탄 코끼리도 눈에 띄었다. 작은 창문이 사방으로 나 있는 가마는 코끼리 등에 얹혀 있었고, 창문에는 주렴이 주렁주렁 늘어뜨리어져 군사들은 가마 안의 왕비를 볼 수는 없었다. 다르마는 가끔 주렴을 들어 올리면서 바깥의 동정을 살피곤 했다. 락슈미띳사와 보따리를 손에 든 궁녀들은 다르마 왕비가 탄 코끼리 뒤에서 종종걸음으로 뒤따랐다.

빈두사라왕 군사는 하루에 1요자나(yojana) 거리만 이동했다. 1요자나란 왕이 하루 행군하는 40리 정도의 거리를 뜻했다. 물론 빈두사라왕 진압군은 1요자나를 더 갈 때도 있었다. 좋은 숙영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숙영지는 반드시 우물이 있고 코끼리 먹이가 풍부한 곳이어야 했다. 코끼리는 날마다 습지의 부드러운 풀이나 산자락의 딱딱한 나무껍질과 뿌리 등 어마어마한 양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다.

빈두사라는 소국의 왕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빠딸리뿌뜨라와 탁실라까지의 중간쯤 되는 꾸루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꾸루국 왕은 숙영지 부근으로 악사와 무희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꾸루족 요리사들은 공작새 요리를 머리에 이고 왔다.

"대왕이시여, 저희 나라를 방문하시어 영광입니다. 편히 쉬었다가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젊은 꾸루국 왕은 빈두사라의 심기를 살피면서 말했다.

"꾸루국을 방문해 주시어 영광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대왕님을 위해 꾸루국 악사는 물론 공작새 요리를 한 요리사까지 와 있습니다."

꾸루국 왕은 빈두사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우리아국 북서쪽에 있는 꾸루국은 마우리아국의 눈엣가시인 깔링가국과 연합해왔던 것이다. 깔링가국은 비록 소국이지만 마우리아국이 함부로 다루지 못해왔던 나라였다. 깔링가국은 마우리아국에 복속하고 있는 듯 엎드려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도 꾸루국은 깔링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은밀하게 협력해 왔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꾸루국 왕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환대를 잊지 않겠소. 나는 꾸루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소. 우리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 악사들의 연주는 사양하겠소. 그러나 왕께서 가져온 공작새 요리는 내일 행군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소."

그때 빈두사라왕을 보좌하는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가 귓속말로 조언했다.

"꾸루국 왕은 간사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악사나 요리사들이 품속에 칼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하옵니다."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했소. 우리 숙영지 안으로 불러들일 때는 몸수색을 하시오."

꾸루국 왕이 빈두사라왕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희들 호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우리 전통음악과 공작새 요리로 대왕님의 피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소."

빈두사라가 경계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자, 꾸루국 왕이 더욱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깔링가국과 손을 떼시오."

"꾸루국은 깔링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바다 너머에 있는 나라에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깔링가국에 협조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꾸루국 왕의 말에 빈두사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때 또 다시 제관 칼라따까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속지 마시옵소서. 저 간사한 왕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할 것이옵니다. 조공을 감면해줄 테니 깔링가국과 손을 떼라고 하시옵소서."

빈두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꾸루국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소. 우리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감해줄 테니 깔링가국과 협력을 끊으시오."

조공을 감해준다는 말에 꾸루국 왕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산악이 대부분인 꾸루국은 공작새 수십 마리와 코끼리 다섯 마리를 매년 마우리아국에 조공하는 일이 힘겨웠던 것이다.

"관대한 대왕이시여, 공작새는 키워서 바칠 수 있으나 코끼리는 다른 나라에서 구해 보내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코끼리 조공을 면제해주신다면 대왕의 덕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좋소. 코끼리 조공을 면제해주겠소."

"대왕이시여, 대왕이 계시는 마우리아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소국들이 대왕을 우러르며 따를 것입니다. 다만."

"더 할 말이 있소?"

"다만, 바로 깔링가국과 손을 떼면 이미 나가 있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잡혀 죽을 것이니 일정한 기간을 유예해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칼라따까는 꾸루국 왕을 의심했다. 깔링가국과 내통하면서 장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칼라따까가 다시 빈두사라왕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꾸루국 왕과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겠소."

빈두사라는 열대여섯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꾸루국 왕을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다.

"이리 오시오. 친해지고 싶소."

빈두사라는 신하들의 마음을 살필 때 눈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신하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거나 지나치게 눈을 깜박거렸던 것이다. 그런데 꾸루국 왕의 태도는 주눅이 들어 있을 뿐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빈두사라는 꾸루국 왕을 믿어보기로 하고 조언해주었다.

"내가 깔링가국과 협력을 끊으라고 한 이유는 또 이런 것이 있소. 자, 제관께서 깔링가국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이야기해 보시오."

칼라따까가 빈두사라를 한 번 쳐다보더니 곧 꾸루국 왕을 무시하듯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꾸루국 왕이시여, 깔링가국 백성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오. 옛날부터 브라흐민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최하층의 브라흐민이라오. 그들에게는 〈베다〉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하늘과 별에 대한 지식도 무지하며, 산 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도 없다오. 신들은 깔링가국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제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오. 그러니 깔링가국은 축복받을 수 없는 땅이라오."

빈두사라가 깔라따까의 말을 자르며 꾸루국 왕에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소? 깔링가국은 발을 들여놓지 못할 땅이라는 것을. 그러니 깔링가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발로 죄를 짓는 것이라오."

꾸루국 왕은 몹시 위축되어 바들바들 떨었다.

"아그니(火神) 제사를 지내야 벌을 면할 것 같습니다."

아그니는 바이슈바나리아의 별칭이었다. 마우리아국 브라흐민들이 깔링가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베다〉의 권위를 무시하고, 브라흐민 제사장들이 벌이는 희생제를 비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우리아국의 불교와 자이나교, 심지어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은 빈두사라왕의 신하들이 깔링가국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에 마음속으로는 동조하지 않았다. 깔링가국 사람들은 브라흐민보다 불교와 자이나교 수행자들을 더 존경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깔링가국에서는 브라흐민들이 마우리아국과 달리 대접받지 못했다.

"대왕이시여, 저희 악사들이 꾸루국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싶어합니다."

"좋소. 우리 군사가 몸수색을 하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오."

"제가 먼저 자원해서 받으면 저의 신하들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꾸루국 왕은 흔쾌하게 몸수색을 받겠다고 나섰다. 사실 그는 코끼리 조공을 면제받은 것만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다. 꾸루국에서 코끼리를 조공할 때는 온 나라가 한 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만큼 꾸루국에서는 코끼리가 귀했다. 코끼리는 금이나 청동 같은 귀한 광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다. 코끼리를 바치곤 했던 이유는 마우리아 군사가 언제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빈두사라왕과 군사는 꾸루국에서 바친 공작새 요리를 먹으며 악사들이 연주하는 노래와 무희들의 춤을 감상했다. 악사들은 꾸루국 현악기인 사랑기(Sarangi), 입에 대고 부는 마충가(Machunga), 작고 길쭉한 북인 마덜(Madal), 소라고둥으로 만든 샹카(Shankha)를 들고 흥겹게 연주했고 무희들은 빙빙 돌면서 옷자락을 휘날렸다.

악기들은 낯익었지만 음악은 마우리아국과 달랐다. 꾸루국 전통음악은 폭포수 떨어지듯 빠른 소리가 많은 데다 격렬했다. 마우리아국의 전통음악은 강가강의 흐름같이 느리고 드넓은 평야처럼 때로는 부드러웠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꾸루국의 전통음악과 무희들의 춤에 흥미를 잃고 곧 자리를 떴다. 다르마도 궁녀들이 마련한 임시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군사들은 무희들에게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와아! 와아!"

무희들 앞에 수십 명이 달려 나와 미친 듯 춤을 추었다. 다르마의 잠자리는 강변에 마련한 흰색 군막이었다. 흰색 군막 앞에는 모닥불이 타올랐다. 밤공기가 차가워지자 락슈미띳사가 다르마를 위해 모닥불을 놓았던 것이다. 꾸루국 전통악기 소리와 군사들의 노랫소리가 강변까지 들려왔다. 다르마가 락슈미띳사에게 말했다.

"피곤하구나. 나는 뱃속의 왕자를 위해 지금 자야겠어."

"왕비님, 저는 모닥불을 더 피우다가 자겠습니다."

다르마가 군막의 문을 닫았다. 락슈미띳사는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다.

'그런데 왕자님이 아니고 공주님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왕자라고 예언했어. 운명을 아시는 구루시니까 틀림없어. 대왕님도 왕비님도 그렇게 믿고 있는걸.'

락슈미띳사는 장작개비들을 모닥불 위에 던지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모닥불에 던져진 장작개비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탔다. 락슈미띳사는 한 걸음 물러서 쭈그리고 앉았다. 궁녀들은 어느 새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흰색 군막 뒤의 숲속으로 들어가 쇼 같은 것을 둘러쓴 채 잠든 것이 분명했다. 쇼을 둘러쓴 모습은 마치 누에고치 같았다.

밤새 이어질 것 같은 꾸루국 전통악기의 합주소리와 군사들의 노랫소리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락슈미띳사는 잉걸불로 변한 모닥불 옆에서 쭈그리고 앉은 채 졸았다. 빈두사라왕의 친위대 보초병들이 피웠던 모닥불이 일제히 꺼졌다. 숙영지는 비로소 밤의 적막에 휩싸였다.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